

사도행전에서 보는 유대교인들을 향한 사도들의 태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유대교와 모세 율법에 대한 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의 소수가 랍비 유대교를 통째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약 20%는 랍비 유대교를 모조리 배척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논쟁의 경계에서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극히 일부는 랍비 유대교에 대단히 매료되어, 유대 문화를 모두 고수하기를 갈망합니다. 대부분은 대체 신학이나 반율법주의, 심지어 반유대주의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향한 사랑을 발견한 많은 기독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중간 지대에서, 혼돈을 겪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 논란은 행 15장에 나타나는 2,000년 전의 논란과 비교할 만합니다. 당시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도들의 대답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상징-의식적인 요소들은 지킬 의무가 없지만, 보편적 윤리 법은 여전히 요구한다고 해석합니다.

주: 제사장적 상징과 보편 윤리 사이의 구분은 신약에서 창안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표명했던 바입니다. 예슈아께서는 마 9:13, 12:7, 23:23과 막 12:33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허나 상징 율법과 윤리 율법 사이의 구분은 삼상 15:22, 사 1:11, 17, 렘 4:4, 호 6:6, 미 6:7-8 등에 이미 나타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잠 21:3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배경 정보를 드리기 위해, 랍비 유대교나 모세 율법과 관련된 사도 행전의 구절들을 열거함으로 사도들의 태도에 대한 간단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두고 148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78개는 비판을 담고 있었고, 70개는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에 있어 이것이 중요했던 만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이 문제에 균형이 있음을 봅니다. 랍비 유대교를 전적으로 부정적, 혹은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롬 11:28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놀랍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랍비 유대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에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허나 유대교 내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믿음의 요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 비판적인 사도행전의 78개 구절 중 59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핍박과 관련이 있고 10개는 그들의 거부에 대한 것입니다. 단 9개 구절만 율법주의 혹은 죄악을 인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교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연속임을 부정하는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양측에서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랍비 유대교에는 예슈아 신앙을 거부하게 하는, 저변의 “목적 agenda”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과도한 영향을 받아 연약해질 것입니다. 반면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유대교 신앙과 관습을 사도들이 꼭 배척하진 않았습니다.

“긍정”의 구절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주(16 구절)가 사도들이 그것들을 유대 민족의 신앙과 문화와, 민족적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드러났습니다. 예슈아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되지 않게 하려는 시도에서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가 두 번째 범주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계명 준수로 여기고, 옛 이스라엘의 예언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긍정의 세 번째 영역(15 구절)은 랍비 전통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문화를 존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10 개 구절은 사도들이 각 도시의 회당에 들어갈 때 보여준 관습입니다. 회당은 기도와 공동체 생활, 성경 공부에 합당한 곳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대교인들 내부의 어떠한 경건과 신앙, 소명에 대해 말씀하는 14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메시아를 몰랐다는 사실이,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소유했던 의^의의 정도를 무효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진리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토라와 선지서, 신약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저희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TV와 신문에 나간 인터뷰에서, 그들이 물어본 것 중 다수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유대교와 모세 율법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자체도 대단히 세속적인데 말입니다.

예슈아와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 민족과 복음을 나눌 때 토라의 문제를 당면했던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때-1 세기에 그랬듯이, 저희는 저희의 메시지가 초대 사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왕국 최우선주의이기를 갈망합니다.

저희의 접근법은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것이어야 하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담대해야 하며, 윤리적 청렴에 헌신되고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는 균형을 갖춰야겠습니다. 저희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과 전세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 문제와 관한 연합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